



# 쿨 이재훈 '결혼+두 아이 아빠 고백'

자신 팬카페에 “숨겨왔던 사실, 죄송해”

“특수한 저의 환경 이해해주는 소중한 사람”

그룹 쿨 멤버 이재훈(46)이 결혼과 두 아이의 아버라는 사실을 밝히며 팬들에 심경을 전했다. 이재훈은 5일 자신의 팬카페에 '재훈사모 가족분들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아주 오랜만에 재훈사모에 글을 올린다. 하러던 말을 꺼내놓으려니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 여러 가지 감정들이 떠오른다”며 “오늘 그동안 숨겨왔던 사실을 고백하려 한다”고 했다. 그는 “오랜 세월 한결같은 애정을 보내주신 여러분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지 못했던 건 아마도 제 마음속에 죄책감이 저를 막아

섰던 거 같다. 이재훈 공개하게 된 저의 가정 이야기에 실망하거나 당혹해하실 모든 분들께, 거두절미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그저 우물쭈물하다 보니 세상에 꺼내지 못하고 세월이 흘러 버렸다. 아무런 의도가 없었음에도 무엇인가를 숨기고 살아왔던 나날 동안 늘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러웠다. 함께 있는 것이 좋았고 미래를 같이 만들어가고 싶은 사람이었다. 특수한 저의 환경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며 기쁜 일과 슬픈 일 모두를 함께 나누고 저를

위해 기도해주는 소중한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했다. 이재훈은 “정상적인 과정이라면 그 사람과 함께 할 미래에 대해 많은 분들과 나누고 축복을 구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 아이가 생기면서 몇 번이나 고백을 결심했지만 일반인으로서 타인의 관심을 부담스러워하는 아내를 생각하다 저희 양가 가족, 친인척 지인분들만 모시고 아주 작은 결혼식을 조촐히 치렀다”며 “그렇게 두 아이의 아빠가 됐고 아무것도 세상에 밝히지 못한 채 오늘까지 왔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내와 가족들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상처를 주고 있는 건 아닌지 많은 생각이 들었고 하루라도 빨리 모든 사실을 고백하고 남편으로 아빠로 당당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했다”며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지는 못

했지만 한결같이 저를 위해 무한한 크기의 배려와 양보를 해준 아내에게 감사하고 제 아내가 이 고백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재훈 소속사 측은 뉴스1에 “이재훈이 지난 2009년 여자친구와 결혼해 2010년에 첫째 딸을, 2013년에 둘째이자 아들을 각각 얻었다”라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이재훈의 아내는 비연예인으로, 3~4년 교제 후 자연스럽게 가정을 이루게 됐다. 한편 이재훈은 1994년 쿨의 정규 1집 앨범 '너 이길 원했던 이유'로 데뷔했다. '해변의 연인' '애상' '슬퍼지려 하기 전에' 'All For You' 등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키며 큰 사랑을 받았다. 2007년에는 솔로 1집을 냈고, 현재까지도 가수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 '기생충' 최우식, 아카데미 시상식 참석 확정...9일 출국

배우 최우식이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 참여한다. 최우식의 소속사 매니지먼트 측은 5일 뉴스1에 “최우식이 아카데미 시상식에 참여하기 위해 9일 출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까지도 아카데미 시상식 참석 여부가 불투명했던 최우식은 현재 촬영 중인 영화 '경관의 피' 제작진의 배려로 최종 참석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최우식의 출연 영화 '기생충'은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국제영화상,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편집상, 미술상까지 6개 부문의 후보로 최종 지명됐다. 그 중에서도 국제영화상 수상은 거의 확실하다고 여겨지고 있으며 작품상과 감독상 등의 수상 역시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고 있다. 그에 따라 최우식을 비롯한 송강호와 이선균, 조여정, 박소담, 이정은, 박병훈 등은 시상식에 참석



해 역사적인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우리나라 배우 및 감독이 아카데미 시상식에 후보작을 들고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아카데미 시상식은 오는 9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극장에서 개최된다. 뉴스1

## '기생충' 실수로 공개된 오스카상 예측서 '최우수작품상' 선정 눈길

“진짜 목록인데 실수나 해킹으로 유출됐을 것”

매년 오스카상을 선정해 수여하는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가 시상식을 약 일주일 앞두고 실수로 예측 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이 목록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최우수 작품상 등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외신들에 따르면 4일 아카데미는 “올해 오스카상은 누가 받게 될까 예측해달라. 그리고 2월9일에 당신의 예측이 어땠는지 보자”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카데미가 예측한 것으로 추정되는 오스카상 수상작 목록이 '나의 오스카상 예측'이라는 제목으로 올랐다. 투표는 진행중인데 이같은 목록이 오르자 트위터에서는 실제 수상작이 사전에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 목록에는 봉 감독의 기생충

이 최우수작품상과 국제영화상·각본상·미술상을 받고, 샘 멘데스의 '1917'은 감독상을 수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기생충은 오스카에서 최우수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편집상, 미술상, 국제영화상(구 외국어영화상) 등 6개 부문에 후보로 오른 상태다. 논란이 거세지자 아카데미는 사용자들에게 “트위터 상의 오류 때문에 여러분의 수상 예측이 아카데미의 공식 예측처럼 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트위터는 삭제된 상태다. 이같은 해명에도 트위터 이용자들은 실제 수상작 목록인데 실수나 계정을 해킹당해 유출된 것일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전했다. 뉴스1

## tvN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99학번 의대 동기 5인방 공개

조정석·유연석·정경호·김대령·전미도

올해 최고 기대작·화제작...3월12일 첫 방송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주연들의 영상이 공개됐다. 오는 3월12일 처음 방송되는 tvN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극본 이우정/연출 신원호/제작 에그이즈커밍)은 누군가는 태어나고 누군가는 삶을 끝내는 인생의 축소판이라 불리는 병원에서 평범한 듯 특별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20년 지기 친구들의 케미스토리를 담은 드라마다. 매 작품마다 전국민적 신드롬을 일으켰던 신원호 감독과 이우정 작가가 병원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드라마를 선보인다는 것만으로도

2020년 최고의 기대작이자 화제작으로 단숨에 떠올랐다. 여기에 조정석, 유연석, 정경호, 김대령, 전미도까지 연기력과 대중성을 모두 겸비한 배우들의 출연소식으로 완성된 믿고 보는 '작감배' 라인업은 또 하나의 레전드 드라마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공개된 2차 티저 영상은 99학번 의대 동기 5인방의 완전체를 처음으로 공개해 시선을 집중시킨다. 단 한 컷의 장면만으로도 의사로 변신한 조정석, 유연석, 정경호, 김대령, 전미도의 활약과 이들의 짝한 우정과 리얼 케미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것.



여기에 '응답하라' 시리즈부터 '슬기로운 감빵생활'에 이어 등장한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새로운 인생 드라마의 탄생을 압박했음을 예감케 하며 더욱 호기심을 자아낸다. 가장 마지막에 등장한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의대 동기 5인방의 완전체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들이

어떤 스토리로 안방극장을 웃기고 울리게 될 것인지 기대를 최고조로 끌어올린다. 무엇보다 조정석의 '평범한 우리들의 조금 특별한 매일'이라는 나레이션은 이들의 '짠' 우정에서 느껴지는 훈훈함을 배가시킨다.

## 장영란 “얼굴 다 뜯어고쳤다고? NO...쌍꺼풀만 세 번”

“그것도 15년 넘어...코·턱·이마·광대·볼 다 제끼”

방송인 장영란이 성형에 대해 해명했다. 장영란은 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안부글과 TV조선 '아내의 맛' 출연 소감을 남기면서 “기름 얼굴 다 뜯어고쳤다는 댓글 있으신데, 저 쌍꺼풀 세 번, 그것도

15년은 넘었어. 그러니 오해 말아주세요. 코·턱·이마·광대·볼 등 다 제껴드립니다”라고 밝혔다. 또 장영란은 “이렇게 혹시 오해 하시 분들 있으시면 오해도 풀고 제 속 얘기도 하고 좀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팬 쌤으시

죠?”라며 “저도 예능인이지만 말더 예쁘게 하려고 노력할게요. 아무튼 두 아이들 노는 소리 들으며 주저리 주저리 말이 많았네요.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많이 웃는 일 있으시길요”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영란은 매주 화요일 오후 10시 방송되는 '아내의 맛'에 출연 중이다. 뉴스1



## 김우석, 상반기 첫 솔로 앨범으로 돌아온다

자작곡 수록

가수 김우석이 솔로 앨범을 발매한다. 가수 티오피미디어는 5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김우석의 향후 활동 계획을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김우석은 상반기 중 솔로 앨범을 발매, 앨범 활동과 관련해 발매일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공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단독 팬미팅 '우석아' 개최를 알리며 솔로 활동 시작을 알렸던 김우석은 이날 솔로 앨범 발매 소식을 전하며 본격적인 솔로 활동을 예고해 관심이 뜨겁다. 특히 김우석의 첫 번째 솔로 앨



범에는 단독 팬미팅 '우석아'를 위해 준비했던 자작곡도 함께 실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김우석은 본격적인 솔로 활동을 앞두고 오는 6일 오후 6시 V LIVE 채널을 오픈, V LIVE 채널을 통해 팬들과 더 다양한 소통을 나눌 것을 예고했다. 한편 김우석은 솔로 앨범과 함께 단독 팬미팅 '우석아'를 준비 중이다.

## JTBC 신규예능 '유랑마켓', 포스터 공개



JTBC 신규 예능 프로그램 '유랑마켓'의 포스터와 티저영상이 공개됐다. JTBC '스타와 직거래-유랑마

켓'(이하 '유랑마켓') 측은 5일 서장훈 장윤정 유세윤의 모습이 담긴 포스터를 공개했다. '유랑마켓'은 집 안에 잠들어 있는 물건의 가치를 되새겨보는 '내 물건 심폐소생 프로젝트'다. 스타 의뢰인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자신의 물건을 중고 거래 장터에 올리고, 직접 동네 주민과 거래하며 펼쳐지는 에피소드를 담는다. 공개된 포스터에는 “안 쓰는 물건 팔아드릴까요?”라는 문구와 함께 문 앞에 빼꼼히 고개를 내밀고 있는 MC 서장훈 장윤정 유세윤의 모습이 담겨있다. 한편 '유랑마켓'은 오는 16일 오후 7시40분 처음 방송된다.